

강진교육지원청, 책과 미술이 만나는 '그림독후감'

강진군도서관 연계...독서·토론·글쓰기 교육 지원

자아 성찰·타인-사회 이해 안목 길러주고자 기획

강진교육지원청(교육장 윤재현)은 지난 14일부터 강진군도서관과 연계해 '그림독후감' 프로그램을 운영을 시작했다.

'그림독후감' 프로그램은 꿈, 자존감, 관계, 인권, 장애 등의 가치를 주제로 하는 다양한 도서를 활용해 독서·토론·글쓰기 및 그리기 활동을 함으로써 자신을 성찰하고 타인과 사회를 이해하는 안목을 길러주고자 기획되었다.

강진 지역의 독서 지도사와 미술 작가가 학교를 방문해 팀터칭으로 수업을 진행하

며, 책을 읽은 후 독후활동 및 토론 과정을 거쳐 그림 작품 1점을 완성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림독후감 프로그램을 신청한 도암중 정예영 교사는 "학생들이 책을 읽은 후 느낀 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인상 깊은 장면을 그림으로 자유롭게 표현함으로써 읽기의 즐거움, 생각의 즐거움, 표현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독서와 미술이 융합된 수업에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의 독서효과를 높이고 소통과

공감 능력, 자기표현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공동체 역량을 기르는데 필요한 인성 및 감성 지식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다."라고 말했다.

강진교육지원청은 강진군도서관과 2019년 9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질의 독서환경 조성 및 지역사회 독서교육 활성화 및 교육·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강진군도서관 및 지역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다.

현재 양 기관이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 학부모가 참여하는 '아침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 강진군도서관



독서심리상담사와 함께하는 '신나는 책놀이' ▲원어민교사와 함께하는 'Fun Time With Books' 프로그램 ▲ 학교로 찾아가

는 강진인형극단 나루의 연극 공연 등이 있다.

강진=김영일 기자

광주 화운유치원, '원격수업 꾸러미' 배부

가정돌봄 및 놀이지원 위해



화운유치원이 최근 광주지역의 코로나 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오는 29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가정돌봄 및 놀이지원을 위해 원아 107명에게 '원격수업 꾸러미'를 15일 배부했다.

배부된 '원격수업 꾸러미'는 가정돌봄 및 원격수업 장기화에 대비해 등원과 원격수업이 병행되는 기간 동안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으로 마련했다.

'원격수업 꾸러미'는 여름철임을 감안해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총, 유아용 1인 비치 의자, 부채, 가족용 보드게임 등 다양한 구성물로 구성됐다.

화운유치원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학부모들을 위해 놀이법 등을 소개한

가정통신문을 '원격수업 꾸러미'와 함께 배부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화운유치원 한 학부모는 "지난 4~5월 긴급돌봄 기간 동안 유치원이 배부한 놀이꾸러미를 받고 만족했다"며 "코로나 19로 여름철임에도 물놀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번에 받은 '원격수업 꾸러미'에는 아이들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놀잇감이 많이 들어있어 한층 더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화운유치원 박세라 원장은 "갑자기 우리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병행수업으로 전환됐다"며 "병행수업으로 인한 아이들의 학습 공백 및 가정돌봄의 지속에 대한 학부모들의 염려를 덜어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포스트 코로나시대...마을학교 교육 방향 모색

담양교육지원청, 담양마을교육공동체 역량강화 연수



담양교육지원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마을학교 미래!' 라는 주제로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원격수업 전환으로 향후 마을학교 운영 방향 모색을 위한 담양만의 마을학교 운영에 대한 토론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꿈꾸는중심마을학교 네트워크를 통해 마을학교 간 프로그램 상호 운영, 우수사례 공유, 교육프로그램 운영 노하우 등 벤치마킹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지역 여건 및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한 하반기 교육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 운영할 계획이다.

담양=박종영 기자

광양덕례초, 찾아가는 다문화교실 운영

전남국제교육원 지원...2학년 학생 전체 대상 2시간씩 지원

광양덕례초등학교(교장 전문주)는 더불어 사는 세계인으로 자라는 덕례인을 키우기 위해서 전남국제교육원에서 지원하는 '찾아가는 다문화교실'을 운영하였다.

우리 학교의 다문화 학생은 53명(11%)이며, 그 중 2학년 다문화 가정은 11명이다.

찾아가는 다문화교실은 2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2시간씩 각 교실에서 두 분의 다문화 강사가 진행하였다.

각 교실에서는 일본, 몽골, 필리핀 등 3개국에 대한 다문화 이해 교육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나라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진행

되었다.

강사들은 모국 국기에 대한 설명, 전통 의상 소개, 그 나라의 대표적인 인사말, 고유의 명절음식, 독특한 계절 등을 재미있는 이야기와 자료, 실물을 활용하여 소개하였다. 강사들의 열정에 더불어 학생들은 생생한 강의에 빠져들었다

소개된 나라의 독특한 풍경 색칠하기, 인사말 따라 하기, 퀴즈 맞추기, 역할극 해보기 등으로 흥미로운 시간을 가졌다. 특히, 그 나라의 전통 옷을 직접 입어보고 그 나라 사람이 되어보는 흉내를 내보는 활동은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였다.

'찾아가는 다문화교실' 활동이 끝난 후

학생들에게 간단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대부분 학생들(90%)이 이번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했으며, 우리와는 다른 다양한 다문화화를 존중하는 마음(92%)이 생겼다고 했다. 기회가 된다면 다양하고 독특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학생들과 친구로 사귀고 싶다고 했으며(80%), 주변 친구 중 어려움을 겪는 외국 이주민 친구가 있다면 가까이 도와주겠다(85%)고 하였다.

프로그램 참여 전에 가졌었던 편협한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었다.

광양덕례초등학교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더불어 사는 세계인으로 자라는 광양덕례인을 양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순천전자고, '한복 교복 시범학교' 선정

이르면 10월부터 한복교복 착용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이르면 올 10월부터 한복 교복을 착용하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올해 한복 교복 보급시범사업을 위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협력하여 공모전에 참가한 전국 50개의 중·고등학교 중 최종 22개의 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하였으며, 이를 대상으로 한복 디자이너를 파견하고 시제품 제작을 지원한다.

순천전자고는 3년 동안(1년 차 1, 2학년 / 2년 차 1학년 / 3년 차 1학년 대상) 한복 디자이너가 학교를 방문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맞춤형 디자인을 개발하고 교복 시제품을 제작하는 등의 지원을 받으며 교복이 무상 보급될 예정이다.

순천전자고등학교(교장 정병원)가 교육부와 문체부가 주관하는 '한복 교복 보급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삶을 가꾸는 교육,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